

“대체할 종자도 없다”... 날벼락 맞은 농심

채종때 기상악화로 발아 지연... 소독 과정 문제 추정 국립 종자원 공급범씨 사용 중지 지시외 대책 없어

“벼락 맞았어요. 당장 모내기가 코앞인데,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남은 범씨도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화순군 화순읍에서 만난 한 농민은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한 범씨 1000kg을 사 그대로 파종했을 뿐인데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다 갈아엎을 판”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정부는 ‘불량’ 범씨 공급으로 전남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영농철을 앞두고 유류대와 농사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속병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받고 산 범씨마저 불량이라서 아예 농사마저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 보급종은 종자의 품질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돼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아 고 품질 쌀 생산에 적합하다고 설명해왔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불신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6800 농가, 농사 못 짓는다? = 국립종자원이 도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광주·전남 6800 농가에 공급한 ‘호품벼’는 광주 130·전남 582t 등 모두 712t으로, 광주·전남에 공급한 전체 종자 4555t의 15.6%에 이른다.

종자원은 최근 이 종자에 대한 사용 중지를 내렸다.

모판에서 일정하게 싹이 트지 않는 ‘발아 지연’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민원이 폭주한데 따른 것으로, 85% 이상을 보여야할 발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립종자원은 그러나 공급한 범씨에 대한 사용 중지를 지시했을 뿐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체해 공급해야할 호품벼 범씨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데다, 다른 종자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벼농사에 써야할 범씨가 없을 경우 자칫 농민들 입장에서 눈 뜨고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4일 화순군 하나문문화센터에서 전남도와 시·군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범씨 발아지연’에 대해 긴급 논의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립종자원은 또 지역별로 발아 지연 편차가 다르고 파종 시기 등 모판 심는 방법이 다양한 탓에 왜 발아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내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종자 채종시 기상악화 등으로 범씨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발아율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씨 공급 과정에서 소독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애꿎은 농민만 피해 = 화순군 춘양면의 한 농민은 “종자원에서 보급한 종자로 못자리를 설치했으나 발아율이 떨어져 옆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논에 모를 내야 하는 농민들은 모가 고르게 자라지 않을 경우 이앙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시 범씨를 구입해 모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이 때 들어가는 인건비와 상토비, 비닐하우스나 부직포 구입비용 등을 이충으로 부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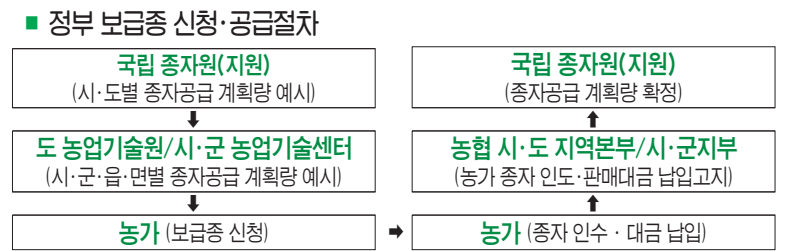
그나마 대체 종자가 없어 모판을 다시 설치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립종자원은 농협 RPC 등 등에서 확보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범씨 품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모내기 시기를 고려하면 소독 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공급할 수밖에 없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도내 1000개 농가에서 범씨 4555t을 채집해 공급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보급종 범씨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화순군 화순읍 한 주민이 발아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호품벼 모판을 들어보고 있다. 농민들은 “이대로는 모내기를 할 수 없어 모판을 엮고 다시 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지었다.



■ 종자 보급 어떻게... 문제된 호품벼는?

발아율 향상·순도 유지위해 소독후 공급 호품은 밥맛 일품에 수확량도 많아 인기

보급종은 정부에서 생산·공급하는 종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974년 이후 벼를 비롯해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 주요 6개 작물의 보급종 생산·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재종해 재배한 일반종자와 달리 보급종 종자는 현대식 정선시설에 의해 엄선해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 특성이 보존돼 일반종자보다 증수(增收) 효과가 6~66% 높다.

보급종은 기본식물(품종육성기관에서 육성한 원래의 종자)→ 원원종(품종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원종(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보급종(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 등 크게 4단계의 채종절차를 거쳐 생산, 농가에 공급된다.

특히 보급종은 발아율 향상과 순도 유지를 위해 이물질 제거·미숙립 제거·현리분리 등 4단계의 엄격한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종자 전염병 방제를 위해 소독을 실시한 후 농가에 공급

된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절차는 국립종자원의 시·도별 종자생산계획에 따라 작별별 종자 공급가능량을 각도 농업기술원에 예시한다. 종자수요 농가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민상담소(또는 읍·면 사무소)에 희망품종과 물량 등을 신청하게 된다.

국립종자원 광주·전남지원은 올해 재배할 벼 보급종 4555t을 보급했다. 일미벼(1293t), 새누리벼(722t), 호품벼(712t), 온누리벼(597t), 황금누리벼(436t), 남평벼(254t), 동진찰벼(159t), 호평(133t) 등이다.

이번 문제가 된 ‘호품벼’는 10a(300평)당 수확량이 600kg인 다수확 중간식생 품종이다. 특히 밥맛이 좋으면 소출이 적고, 알곡이 많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호품은 일품 밥맛에 수확량도 많아 지난해 농가의 인기를 끌었던 품종이다. 이에 따라 종자 보급 3년 째인 지난해 재배 면적 전국 1위로 올라섰다.



종자대·상토비 지원... 인건비·소독약 값 제외

광주·전남 6800농가 피해 보상 어떻게

정부 당국이 공급한 호품벼 범씨가 발아율이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등 불량 범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공급받은 광주·전남지역 6800여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측은 정부 보급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원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종 후 육묘에 실패한

농가에는 종자대와 상토 비용을 현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보상 지원책이 현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뜰이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다시 못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2배 이상 소요되는 만큼 소독약 값과 못자리 설치 작업비 등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만 믿고 산 종자가 불량해 이충

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의 손실을 농가한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의 향후 피해를 감안하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정부가 공동 육묘장을 조성하는 등 대체종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국립종자원이 뒤늦게 발아율 불균형을 인정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 놓고도 정작 농가의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상일로점(법률관리) 상담료 무료 |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회) |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서민회관) |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 032617-5110 수원점(남문) | 031246-5110 의정부점(보현로) |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 |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 031658-5110 용인점(용인4거리) |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시점(GS백화점) | 032039-4400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명로터리) |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 055297-6060 진주점(구.중앙시장) | 0551745-9870 창원점(한양은행) |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4거리) | 053425-4440 성덕점(성덕4거리) | 053426-1511 남양주점(아카데미) | 053425-7575 경북 포항점(국거리) | 054244-5110 안동점(구.인동초교) |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장) | 062861-4477 전남 순천시점(중앙시장) |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터리) | 063822-5728 군산점(구.시정) | 063446-0198 익산점(백부시장) | 063838-5000 남원점(시정) |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청) |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 042255-4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천안로) | 043222-1177-8 충주점(삼천리) |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2거리) | 033647-0588 춘천점(철도광장) | 03382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터리) | 06475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인증 | 국제인증기관 인증 ISO 13485인증 | CE마크 인증 | 의료기기 제조업체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